

'SON이 넣으면 안 진다'

손흥민 골 넣은 9경기 토트넘 성적 8승1무

'손(Son)이 넣으면 안 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를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공식이다. 손흥민(25)은 2017~2018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치른 26차례 공식경기에서 총 9골을 넣었다.

지난 6월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팔 골결실을 입어 시즌 초반 에를 막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기량을 찾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손흥민이 골망을 흔든 경기에서 토트넘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흥민이 골을 넣은 9경기에서 토트넘의 성적은 8승1무다.

'손흥민 골=토트넘 승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이미 5패를 당했고 리그컵인 카보베르데에서 조기 탈락한 것을 떠올리면 꽤나 공황이 잘 맞는 셈이다.

기본 좋은 인연은 지난 9월14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흥민은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3-1 승리에 앞장섰다.

10월23일 리버풀과의 라이벌전에서는 두 번째 골로 4-1 대승에 기여했고, 11월8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는 그라운드를 밝은 양 팀 선수 중 유일한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다시 만난 도르트문트(11월22일)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

상대로는 결승골을 가져갔다.

1-1로 맞선 후반 31분 골망을 뚫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시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6골(8경기)을 넣으며 '도르트문트 킬러'로 불린 모습 그대로였다. 도르트문트는 유니폼을 바꿔입은 손흥민에게 또 다시 당해야 했다.

12월에는 더욱 높이 날아올랐다. 이탈리아의 선수상까지 기대될 정도로 거침이 없었다.

7일 아포엘과의 챔피언스리그를 시

작으로 10일 스톡시티전, 14일 브라이트전 26일 사우샘프턴전에서 연거푸 득점포를 가동했다.

토트넘도 어김없이 승리를 챙겼다. 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현지 언론의 칭찬도 속속 나왔다.

지난 한 해를 기본 좋게 마무리 한 손흥민은 3일 기성용이 속한 스완지 시티와 새해 첫 경기를 벌인다. 유럽 출장 중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현지에서 지켜볼 예정이다.

/뉴시스

FA 최지만, MLB 13개 구단 러브콜... 140만달러 수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FA) 신분인 최지만(26)이 미국 메이저 리그(MLB) 13개 팀의 러브콜을 받았다.

최지만의 소속사 GSM은 지난 29일 "최지만이 올해 MLB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과 잠재력으로 메이저 리그 윈터미팅이 시작되기 전부터 최지만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았다."

현재 총 13개 구단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초 MIB로 콜업된 최지만은 이를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최지만의 2017년 시즌 메이저리그 성적은 타율 0.267, 2홈런 5타점이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1.067에 이른다.

표본(6경기)이 적긴 하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최지만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은 전

소속팀 뉴욕 양키스를 비롯해 템파베이, 오클랜드, 밀워키, 마이애미, 시카고 컵스, 신시내티, LA 에인절스, 볼티모어, 미네소타, 애들란트, 토론토, 시카고 화이트삭스 등이다.

GSM은 "메이저리그 FA 시장에 유독 대형 1루수가 많아 최지만의 계약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야수 최대어로 손꼽히는 에릭 호스머는 물론 루카스 두다, 로건 모리스, 마이크 나폴리 등 거포 1루수들의 계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GSM은 "구단명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복수의 구단과 계약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1년 계약 규모는 총 140만 달러(약 15억원 전)"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에서 개인운동 중인 최지만은 1월 초 미국으로 가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시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FA) 신분이 된 최지만

마마무, 6개월 만에 컴백... 4일 스페셜 싱글 '칠해줘' 발매

인기 걸그룹 '마마무'가 6개월 만에 컴백한다.

지난 29일 소속사 RBW에 따르면 마마무는 1월4일 스페셜 싱글 '칠해줘'를 발매한다.

마마무가 내년 한 해 동안 그려 나갈 활동의 첫 밑그림이다.

RBW는 "마마무의 오프닝 싱글 '칠해줘'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마마무와 팬들이 하나돼 2018년을 함께 색칠해 나가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다"면서 "다채로운 보컬 음악



을 가득 채우는 풍부한 사운드가 인상적인 노래"라고 소개했다.

마마무는 컴백에 앞서 이날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우아한 포즈와 신비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걸그룹 마마무는 2014년 6월 데뷔곡 Mr. 애매모호를 시작으로 '피아노맨', '음오야예', '넌넌넌' '데칼코마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등 히트곡을 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 RM 피쳐링곡, 빌보드 '록 디지털 송' 2위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피쳐링한 곡이 미국 빌보드 '록 디지털 송 세일즈(Rock Digital Song Sales Chart)'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2018년 1월 3일자 차트에 따르면 미국 록 밴드 '폴아웃 보이(Fall Out boy)'의 '챔피언 (Champion)' 리믹스가 '록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 2위를 차지했다.

앞서 RM이 피쳐링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곡이다.

'챔피언' 리믹스는 또한 미국 빌보드의 버블링 언더 핫 100' 차트에서도 18위에 올랐다.

'버블링 언더 핫 100' 차트는 '핫 100' 싱글즈 차트에 아쉽게 오르지 못한 25곡을, 음반 판매량과 라디오 스트리밍 데이터를 중심으로 순위를 정하게 되는 차트다.

이밖에도 RM은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Emerging Artists)' 차트에서 46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해당 차트에



올랐다.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는 '아티스트 100' 차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차트로 '빌보드 핫100, 빌보드 200, 소셜 50' 등 빌보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차트

에서 아티스트의 활동을 측정해, 새롭게 떠오르는 아티스트의 순위를 정하게 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양한 영역에서 인기를 확인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 뷔는 미

국 영화사이트 TC캔들러가 공식 SNS를 통해 최근 공개한 '2017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00인(The 100 Most Handsome Faces of 2017)'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의 굿즈(기념제품)를 판매하는 '방탄소년단 공식 쇼핑몰' 홈페이지는 이날 오픈하자마자 수많은 네티즌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뉴시스

워너원, 빌보드 선정 '2017 K팝 신인 1위'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이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매체 빌보드가 선정한 최고의 K팝 신인이 됐다.

워너원은 빌보드가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개한 '2017 K팝 신인 베스트 1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는 워너원이 음악채널 엠넷의 보이그룹 선발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팀임을 설

명하면서 "'에너지'와 '뉴티폴로' 주목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와 앨범러 이용자들이 뽑은 'K팝송 리스트' 1위에 올랐던 소식도 전달했다.

2018년 말까지 팀이 활동한다면 올해 활약도 기대했다.

빌보드가 뽑은 K팝 신인에는 '프로듀스 101'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

시즌을 통해 결성됐던 프로젝트 걸 그룹 '아이오아이' 출신인 청하가 2위, 역시 아이오아이 멤버들이 포함된 프리스틴과 위키미키가 5위와 7위였다.

시즌 2출신 정세운과 사무엘이 2위와 9위에 올랐다.

이밖에 3위는 드림캐처, 6위는 온앤오프, 8위는 골든차일드, 10위는 에이스가 차지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